



용호골목시장 “값싸고 싱싱 합니다”

추억이 흐르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가다



재래시장이 현대적인 시설과 이미지개선으로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풍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돌리던 발걸음이 이제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전통시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 세월과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하는 우리네 이웃들이 하나 둘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부산남구신문은 이번 호부터 ‘추억이 흐르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가다’를 연재하며 남구의 전통시장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외로우면 시장에 가라”고 누군가 말을 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시장에서 어깨를 부딪치며 물건을 고르거나 흥정을 하다보면 어느덧 일상으로 돌아온 나를 찾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재래시장이라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된다. 어릴 적 행여 어머니 손을 놓칠새라 땀이 나도록 움켜쥐고 따라다니던 추억과 시시콜콜 잡다한 물건들이 정겹게 펼쳐져 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30년 전통 130여개 점포 성업

용호골목시장은 그 모든 낭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분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30년 전부터 용호시장과 더불어 성장해 온 용호골목시장은 109개의 점포와 노점만도 20~30개가 된다. 특히 해가죽화가 된 요즘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춰 다양한 메뉴를 소규모 포장으로 소비자를 모으는데 성공한 것이다.

골목시장 입구쪽에 있는 용호김밥은 골목시장과 고락을 같이 했다고 할 만큼 오래된 분식집이다. 어묵과 떡볶이, 단술, 호박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죽과 카레, 자장 등 집에서 주부가 만든 그 맛 그대로를 소포장 하여 판매하고 있다.

“늦두 반데떡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가정에서 빛기가 번거로워 귀찮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옛 맛 그대로를 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기쟁이예요”

주인 정순실(60)씨는 바쁜 손놀림 중에도 환하게 웃으며 손가락을 치켜든다.

생선 과일 채소 등 특화상품 즐비

25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생선가게 용호상회는 싱싱한 생선만 취급한 까닭에 25년을 버틸 수 있었다며 소비자와의 신뢰를 최우선시 한다.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저렴한 물건만을 취급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렸지요. 싱싱하면서 좋은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는데 승부를 걸고 있어요.”

확신에 찬 주인의 답에 웬지 더욱 믿음이 갔다. 경북상회는 12년 된 과일가게다. 30평이 넘는 큰 가게 안에 즐비한 과일들이 마치 과일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석류며 철 지난 수박까지 과일 일판과일은 다 모여 있다. 이처럼 큰 과일가게가 이곳 시장 안에 네 곳이나 더 있다.

방앗간은 무려 7군데나 된다. 떡 방앗간이 3군데고 기름 방앗간이 4군데다. 그만큼 소비자가 많이 몰린다는 뜻이다. <4면으로 이어짐>



늦가을 정취 물씬 ‘국화전시회’ 남구는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평화공원 내 평화의 광장에서 국화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는 대국과 소국 등 모두 2,700여점의 국화가 선을 보여 이곳을 찾은 주민들에게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했다. 유치원생들이 국화향기를 맡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김명중>

나눔은 우리들의 또 다른 행복입니다

‘2010 복지박람회’ 11.24~26일까지 열려

구청 민원실서

남구는 오는 26일까지 구청민원실에서 ‘2010 복지박람회’를 연다. 남구동행푸드마켓을 후원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에는 장애인시설 등 관내 복지기관에서 만든 제품이 전시, 판매된다.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내 장애인 직업재활원 ‘하나공장’에서는 한지공예품과 화분, 머그컵 등 도자기와 유기제품이 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대연5동 ‘솔라피대의 집’에서는 박람회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유

기능 쿠키와 과자류를 판매한다.

남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진숙)에서는 식품품과 잡화를 판매하는 나눔바자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남구동행푸드마켓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운영하는 다문화카페 ‘휴(hu:)’에서도 간이습터를 마련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OK주민서비스 등 복지정책 홍보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이 서비스는 복지·보건·교육 등 8대 분야 관련 276종, 230개 시·군·구의 자원 서비스로 31만 여종의 광범위한 정보를 안내한다. 이중 2만7,000

건의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박람회 기간 중에는 자원봉사사진전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진작가 최민식과 함께 하는 무료 영상사진 촬영부스도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박람회를 통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제품을 홍보, 판매함으로써 장애인 등과 주민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607-4862

국회도서관, 남구에 도서관기증

관내 찜지도서관 6곳에 신간서적 1,200권 전달

김무성 국회의원 제의 따라

남구는 지난 4일 오후 남구문화원 2층에서 구청장과 유재일 국회의원장, 시·구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국회도서관은 용호동과 감만동에 소재한 찜지도서관 5곳과 LG메트로시티 작은도서관 등 모두 6곳에 1,200권의 도서를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유재일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세계의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해 국외와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기증식을 통해 전달된 신간서적이 남구민들의 독서생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서관이 남구에 도서를 기증하게 된 데에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김무성 국회의원의 숨은 노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식이 지난 4일 남구문화원에서 열렸다.

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남구지역 찜지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국회도서관에 도서기증을 제의, 유재일 관장이 흔쾌히 뜻을 받아들여 이날 도서기증식을 열게 됐다.

김무성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찜지도서관이 예산 부족 등으로 신간서적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회도서관에 지원을 요청해 이번 도서기증 전달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오륙도여성합창단

내달 10일 정기연주회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단장 김옥련) 제7회 정기연주회가 내달 10일 저녁 7시 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녹색 행복, 그 가슴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2010 한해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산유화와 도라지꽃, 가시리, 조국전가, 내나라 내거레 등의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을 들려준다. 이와 함께 방송국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잘 알려진 ‘넬리 판타지아’ 등을 완벽한 하모니로 선 보일 예정이다.

남구소년소녀합창단과 퓨전국악그룹 ‘히나레’ 등이 특별 출연해 공연의 밀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합창단은 이날 나눔장터의 바자회 활동과 부산여성합창 페스티벌 참가 등으로 마련한 기금 190만 원을 19개동 19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순서를 마련해 행사의 의미를 더 할 예정이다.

☎010-2533-7913

남구, 중국 수분하시와 양해각서 체결

경제협력 통한 양도시간 발전 도모키로

남구와 중국 흑룡강성 수분하시가 경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두 도시 간 발전을 꾀했다.

남구는 지난 4일 오전 대외의실에서 구청 간부와 수분하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구청장과 수분하시 어중지당서기는 양해각서에 조인하고 항만·물류·교역분야에 있어 양 도시와 기업인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구와 수분하시는 △양도시 경제정보 교환 △양도시의 무역 전시 및 투자 세미나에 대한 정보 제공 △양도시 기업인들의 상호 방문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 촉진 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수분하시 방문단은 체결식에 이어 구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의 무역관계자들과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분하시 보세구의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수분하시 일행은 설명회를 마치고

남구의회 주관 간담회에 참석한 후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부산에서의 공식일정을 마쳤다.

남구 관계자는 “양도시의 경제관련 정보교환과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환경 등 현지정보를 지역 기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길·라·잡·이

-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면>
- 대연3동 체육공원 준공 <3면>
- 웰컴 베이비 문열었다 <4면>
- 중앙고 자율형공립고 선정 <5면>
- 출산은 2010 행복나누기 <6면>
- 고3수험생을 위한 특별기고 <7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020331-중-12545호

5F 이벤트실/뷔페식당 (환자를 자연식단)

3F 암(癌) 재활병동

2F 노인재활병동

1F 원무과/노인재활병동

B1 주차장

황·령·산·소·나·무·가·보·이·는·창·가·에·햇·살·이·비·칩·니·다·

생각의 깊이가 다른 당신!

당신은 그랜드 자연총병원 가족입니다

희망과 대안이 있는 자연속 명품병원

24H 서비스 의료·간호·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식단 영양과 미각이 걸려준 좋은 재료에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의학·한의학 보와 통합 의학전 재단 의학·한의학 협진 병원입니다.

호텔형 병원 더 쾌적하고 더 편안한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주간/월간 행사

월 16:00 찾아오는 시민 건강강좌

수 15:00 미술수련 다도 요법

목 15:00 행복 숲로몬 웃음치료

매월 환우와 함께하는 그랜드자연 정기 모임회

황령산터널 요금소 500m 앞

보호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병원

전화상담 051.612.0075

www.grandnature.kr/608-020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09-1번지

병원장 나용승 의학박사 現 부산의대외래교수, 부산의과대학후, 동인고후

그랜드 자연총병원

GRAND NATURE HOSPITAL